杜詩 二十三

奉送郭中丞兼太僕卿充隴右節度使

三十韻 郭英乂라

詔發西山將秋屯隴右兵 英乂先爲秦州都督이러니今爲隴右也ㅣ라○詔書로西山人將帥를내셔ᄀᆞᅀᆞᆯ히隴右에兵馬를屯聚케ᄒᆞ시니라

凄涼餘部曲燀赫舊家聲 燀은齒善反ᄒᆞ니光明見ㅣ라上句ᄂᆞᆫ言秦州人部曲이오下句ᄂᆞᆫ言英乂之父知運이開元中人飛將也ㅣ라○나ᄆᆞᆫ部曲이

凄涼ᄒᆞ고뵈지빗ᄂᆞ리ᄂᆞᆫ빗나도다 鷗鷺乘時去 驊騮顧主鳴

皆以義英又也ㅣ라○鷗鷺ㅣ時節을타가ᄂᆞᆫᄃᆞᆺᄒᆞ여驊騮ㅣ님자ᄅᆞᆯ도라보아우ᄂᆞᆫ돗

ᄒᆞ도다 艱難須上策 容易即前程 容易ᄂᆞᆫ猶無難也ㅣ라前

程은言發程前進也ㅣ라○어려운저긔도됸謀策을須求ᄒᆞᄂᆞ니수이곰길헤나아가

놋다 斜日當軒蓋 高風卷旆旌 言別時之景ᄒᆞᄂᆞ니라○빗근ᄒᆡᆺ

비ᄎᆞᆫ軒蓋ᄅᆞᆯ當ᄒᆞ고노ᄑᆞᆫ부ᄅᆞᄆᆞᆫ旆旌을거도ᄇᆞ놋다 松悲天水冷

亂雪山晴 天水縣雪山은皆言秦州事ᄒᆞ다○솘소리ᄅᆞᆯ드르니天水ㅣ서늘ᄒᆞ

녜로소매다ᄅᆞᆫᄆᆞ샌눌러安靜케ᄒᆞ 애征伐을專主케ᄒᆞ믈뵈ᄂᆞ니라 燕薊奔

封豕周秦觸駭鯨 封豕ᄂᆞᆫ封大也ㅣ니此ᄂᆞᆫ 言祿山이叉於幽州而陷

浚洛陽長安也ㅣ라此下로至掄梢同頒ᄒᆞ 逯祿山의陷京師ᄒᆞ다○燕薊예ᄂᆞᆫ큰도ᄐᆡ

도ᄂᆞ고周秦엔ᄂᆞᆯ란 고래다디ᄅᆞ숫다 中原何慘黷餘孽尚縱橫

言祿山이旣死而慶緖爲寇也ㅣ라○中原 이ᄌᆞ모여드ᄉᆞ니餘孽이ᄉᆞ치려셔ᄌᆞᆷ겹도

다 箭入昭陽殿笳吟細柳營 言京師ㅣ陷賊 而胡笳行吟於

漢營也ㅣ라○나리昭陽殿에드노니ᄒᆞ뎌ᄂᆞᆫ細柳營에셔쉽놋다內人紅袖

泣王子白衣行言王子ㅣ避亂故로衣白衣也ㅣ라○안사ᄅᆞᄆᆞᆫ블근ᄉᆞ매예울오王子ᄂᆞᆫ흰옷닙고녀가놋다宸極妖星動園陵殺

氣平宸極엔妖恠로왼별이뮈오園陵엔殺伐人氣運이平ᄒᆞ얫도다空餘

金椀出無復繐帷輕言掘墳陵而出金椀ᄒᆞ니無復有繐布靈帳也ㅣ라○ᄒᆞᆫ갓金椀이나가덧고繐帷의가비야오ᄆᆞᆯ업도다毀廟天飛雨

焚宮火徹明宗廟ᄅᆞᆯ허니하ᄂᆞᆯ히수ᄆᆞᆯ비ᄅᆞᆯᄂᆞ리고宮殿을브티니브리새도

[illegible]

로至掃攙搶ᄒᆞᆫ言英乂ᄒᆞ다○석두래王師

ㅣ더욱整齊ᄒᆞ니슰되여 지숣피메나아가리로다 양 瘡痍親接戰勇

決冠垂成 言英乂親冒矢石而其功이冠於 垂成ᄒᆞ시니垂成ᄋᆞᆫ猶欲成也ㅣ라

○쳘므우므로親히사흠블ᄒᆞ니勇決 ᄒᆞ미이러가매다ᄃᆞ로계위두ᄒᆞ도다 妙譽

期元宰殊恩且列卿 元宰ᄂᆞᆫ家宰也ㅣ오列 卿ᄋᆞᆫ即太僕卿也ㅣ라

○微妙ᄒᆞᆫ聲譽ᄂᆞᆫ元宰ᄅᆞᆯ期望ᄒᆞ니殊 異ᄒᆞᆫ恩私로列卿人벼스를ᄒᆞ얏도다 幾

時回節鉞戮力掃攙搶 攙搶은妖星也ㅣ니 言掃除寇賊也ㅣ라

○어느저긔節鉞을도리와 힘뻐攙搶을ᄡᅳ러ᄇᆞ릴고

圭竇三千士雲梯七十城恥非齊說客甘似魯諸生 禮記에 儒有圭竇ㅣ라ᄒᆞᆫ註에門傍애穿墻爲竇ㅣ如圭形也ㅣ라雲梯ᄂᆞᆫ攻城之具ㅣ라漢人酈食其說齊王ᄒᆞ야下七十餘城ᄒᆞ니라此ᄂᆞᆫ甫ㅣ言今當國亂ᄒᆞ야不能如說客之談ᄒᆞ고甘心於諸生之事ᄒᆞ니嘆恨之辭也ㅣ라此下로至獨含情ᄋᆞᆫ甫ㅣ自敍ᄒᆞ다

○圭ᄅᆞᆫᄒᆞᆫ굼긘三千士ㅣ살오구룸ᄃᆞ리엔七十城을降服히니라齊人說客이아ᄃᆞ몯븟그리고魯

人諸生 [illegible]

華ㅣ로다 隨肩趨漏刻 短髮寄簪纓 叙昔日

拾遺時事ᄒᆞ다 ○ 섯게를 조차 漏刻人ᄉᆞ徑리에 ᄃᆞᆫ니고 뎌른 머리를 簪纓에 브티노라

欲依劉表 還疑厭禰衡 王粲이 避亂ᄒᆞ야 往依荊州人劉表ᄒᆞ니

此ᄂᆞᆫ 言甫ㅣ 今欲往依英乂而恐英乂ㅣ 如曹操之厭禰衡而不容也ㅣ라 ○ 곧 劉表ᄅᆞᆯ

븓고져 컨마ᄂᆞᆫ ᄯᅩ 므서 禰衡을 아쳗가 疑心ᄒᆞ노라 漸衰那此別 忍淩

獨含情 漸漸衰老ᄒᆞ매 엇뎨 이 여희요ᄆᆞᆯ ᄒᆞ거뇨 ᄒᆞ오 모ᄆᆞᆷ 含고ᄒᆞ 올ᄅᆞᆯ ᄇᆞ돌 머구

라廢邑狐狸語空村虎豹爭言兵亂애郡邑에無人而惟有

狐狸也ㅣ라虎豹ᄂᆞᆫ喻盜賊ᄒᆞ다○殘廢ᄒᆞᆫᄆᆞᅀᆞᆯ핸여ᅀᆞ숡기ᅀᅥᆺ만ᄒᆞ고뷘ᄆᆞᅀᆞᆯ헌버미

녀ᄃᆞ토놋다人頻墜塗炭公豈忘精誠塗炭ᄋᆞᆫ如陷泥墜火

也ㅣ라言莫又不忘輔君之誠也ㅣ라○사ᄅᆞ미ᄌᆞ조塗炭앳ᄢᅥ러디ᄂᆞ니그듸ᄂᆞᆫ엇뎨

精誠을니즈료元帥調新律前軍壓舊京時예廣平王俶이爲

元帥ᄒᆞ고李嗣業이爲前軍而收復長安ᄒᆞ니라○元帥ㅣ새師律을調和ᄒᆞ며알ᄑᆡ가

ᄂᆞᆫ軍ᄋᆞᆫ녯셔울흘臨壓ᄒᆞ얫도다安邊仍扈從莫作後功名

北工也莫又ㅣ安邊競ᄒᆞ고又及皇鑾而還

鼎湖瞻望遠象闕憲章新 鼎事ᄒᆞ니 見前註

ᄒᆞ다 象闕ᄋᆞᆫ 懸法象於門闕也ㅣ라 時예 肅宗이 崩而代宗이 立ᄒᆞ시니라 ○ 鼎湖ᄅᆞᆯ ᄇᆞ라 보미 머니 象闕엣 法度ㅣ 새롭도다 四海猶多難中原憶舊臣 舊臣ᄋᆞᆫ 指嚴武ᄒᆞ다 ○ 四海예 오히려 難이 하니 中原에셔 녯 臣下ᄅᆞᆯ ᄉᆞ랑ᄒᆞ놋다

與時安反側自昔有經綸 時世ᄅᆞᆯ 다ᄆᆞᆺᄒᆞ야 反側ᄒᆞᆫ 사ᄅᆞᆷᄋᆞᆯ 便安케 ᄒᆞ요ᄆᆞᆫ 녜로브터 經綸ᄒᆞᆯ 지죄 인ᄂᆞ니라 感激張天步從容靜

塞塵 天步ᄂᆞᆫ天運也ㅣ라○感激ᄒᆞ야天步ᄅᆞᆯ펴고從容히ᄀᆞᇫ드트ᄅᆞᆯ安靜케ᄒᆞ도다

南圖回羽翮北極捧星辰 北極은謂天子也ㅣ라言武ᄉᆞ入朝ㅣ如鵬之圖南ᄒᆞ야回羽翮而捧戴北極之尊也ㅣ라○南녀긔셔仰ᄒᆞ야羽翮을ᄃᆞᆯ하가北極에星辰슨捧戴ᄒᆞ리로다

漏鼓還思晝宮鶯罷囀春 言武ㅣ暮春에入朝而憶宮漏也ㅣ리○漏刻ㅅ부프란도로나지ᄉᆞ랑ᄒᆞᄂᆞ니宮殿엣곳고리ᄂᆞᆫ보미우로ᄆᆞᆯ몯놋다

空留玉帳術愁殺錦城人 玉帳은將軍人幕帳이니言武ㅣ入朝ᄒᆞ니但留玉帳之兵術而使蜀人ᄋᆞ로思之也ㅣ

居ᄒᆞ얏도다 此生那老蜀 不死會歸秦 自敘

也ㅣ라 ○이 生애 어느 蜀애셔 늘그리오 주디 아니ᄒᆞ면 모로매 秦에 가리라 公若

登台輔 臨危莫愛身 勸武이 仗節死義ᄒᆞ나 ○그듸ᄒᆞ다가 台輔애 오ᄅᆞ거든 危難을 臨ᄒᆞ야 모ᄆᆞᆯ 앗기디 말라

、奉濟驛重送嚴公四韻

遠送從此別 青山空復情 먼ᄃᆡ 보내요ᄆᆞᆯ 일로브터 여희노니

프른 뫼헤 ᄒᆞᆫ갓 ᄯᅩ ᄠᅳ들 가졋노라

幾時盃重把昨夜月同行

어느 저긔 盞잔ᄋᆞᆯ 다시 자브려뇨 어젯 바미 아ᄃᆞ래 ᄒᆞᆫᄃᆡ 녀라

列郡謳歌惜三朝出入榮

玄宗肅宗代宗三朝也ㅣ라○버렛ᄂᆞᆫ ᄆᆞ올ᄒᆞᆫ 놀애 블러 앗기ᄂᆞ니 三朝ᄅᆞᆯ 나며 드러 ᄃᆞᆫ니ᄂᆞᆫ 榮華ㅣ로다

江村獨歸處寂寞養殘生

甫의 感別知己之辭ㅣ라○ᄆᆞᄅᆞᆷ 무ᄅᆞᆫ 히ᄒᆞ오아 도라가ᄂᆞᆫ 따해 寂寞히 哀殘ᄒᆞᆫ 人生ᄋᆞᆯ 養ᄒᆞ리로다

、奉送韋中丞之晋赴湖南

湖南安背水峽內憶春行 上句ᄂᆞᆫ言能安湖南背水之地也ㅣ라 下句ᄂᆞᆫ韋ㅣ嘗守峽內故로其人이追慕之也ㅣ라○湖南애 믈 지옛ᄂᆞᆫ ᄆᆞᅀᆞᄅᆞᆯ 便安케 ᄒᆞ리로소니 峽內예셔 보미 巡行ᄒᆞᄂᆞᆫ 이ᄅᆞᆯ ᄉᆞ랑ᄒᆞ놋다

王室仍多故 蒼生倚大臣 王室이 ᄌᆞᄌᆞᆫ 緣故ㅣ 하니 蒼生ᄋᆞᆫ 큰 臣下ᄅᆞᆯ 븓놋다

還將徐孺榻處處待高人 言中丞之待士ㅣ 必如陳蕃之設榻ᄒᆞ야 以接徐孺子也ㅣ라○또 徐孺의 榻ᄋᆞᆯ 디녀 곧마다 노ᄑᆞᆫ 사ᄅᆞᄆᆞᆯ 待接ᄒᆞ리로다

留別賈嚴二閣老兩院補闕得聞字 中書舍人賈至와給事中嚴武와補闕岑參이라

田園須暫往戎馬惜離羣 甫ㅣ家在鄜州ㅣ시ᄂᆞᆯ詔許歸省ᄒᆞ시니라○田園에모ᄅᆞ매잠깐가릴시戎馬애물여희요ᄆᆞᆯ슬노라 去遠留詩別愁多任酒醺 먼ᄃᆡ가고라ᄒᆞ기어ᄒᆞ여히오시ᄅᆞ미져수리醉호몰므더니너기노라 一秋常苦雨今日始無雲 ᄒᆞᆫᄀᆞᅀᆞᆯᄒᆞᆯ당샹비苦로외더니오ᄂᆞᆯ아비릇구루미업도다 山路晴吹角那堪處

맛ᄆᆞ구남기어齒잇齒 옛ᄆᆞᄉᆞᆯ옷머므렛도다
艱難歸故里去住
損春心 어려운제벗ᄆᆞᆯ쉬가ᄉᆞ니ᄂᆞᆫ가 교나ᄂᆞᆫ이쇼매보ᄆᆡᆺᄆᆞᄉᆞ미歲損ᄒᆞ
ᄂᆞᆺ다
宮殿青門隔雲山紫邏深 青門은長安城 東門이라紫邏
山ᄋᆞᆫ在汝州ᄒᆞ니라○宮殿은프른門 이ᄌᆞᄆᆞᆷᄒᆞ고구룸뫼ᄒᆞᆫ紫邏ㅣ깁도다
人生
五馬貴莫愛二毛侵 漢儀예太守ㅣ五馬ㅣ 라○人生새나ᄉᆞᆺ모도
미貴ᄒᆞ니두터리ᄋᆡ 侵犯호ᄆᆞᆯᄆᆞ디ᄉᆞ랑라

暮春江陵에셔送馬大卿公의恩命ᄋᆞ로追

赴闕下ᄒᆞ노라

自古求忠孝名家信有之녜로브터忠孝ᄒᆞᆫ사ᄅᆞᄆᆞᆯ求홀뎬일훔난지븨진실로잇ᄂᆞ니라吾賢富才術此道未磷緇論語에磨不磷ᄒᆞ며涅不緇라ᄒᆞ니言馬公의忠孝之道ㅣ不變易也ㅣ라○우리어딘소니才術이하니이道理열우며검지아니ᄒᆞ도다王府標孤暎霜蹄去

不疑호잇ᄂᆞᆫ府에얀지외로이비취옛ᄂᆞᆫ듯고셔리ᄇᆞᆲ논ᄆᆞᆯ바리가ᄆᆞᆯ疑心아니ᄒᆞ

吳로 征ᄇᆡ예 다ᄃᆞᆯ 개니로다

北宸徵事業南

紀赴㤙私ㅣ北宸은帝居ㅣ오南紀ᄂᆞᆫ江陵也ㅣ니言帝命召而馬公이自江陵으로入朝也ㅣ라○北宸에셔事業을徵求ᄒᆞ시니南紀예셔㤙私새 가ᄉᆞ다卿月

昇金掌玉春度玉墀書에御士ㅣ推月이라金掌은漢宮人承露盤之仙人掌이라玉春은春秋에王次春故로云玉春이니言馬卿이赴金掌所在之闕而以春時에請冊墀也ㅣ라○卿月이金掌애오ᄃᆞ고玉春에玉人階墀예ᄂᆞ니리로다

薰風行應律湛露即歌詩 薰風은南風이라伏羲ㅣ伐竹制律ᄒᆞ야以應八方之風ᄒᆞ니言夏節이將至라詩湛露ᄂᆞᆫ天子ㅣ宴諸侯ㅣ니此ᄂᆞᆫ言天子ㅣ賜宴也ㅣ라○薰風이잠ᄭᅡᆫ律管애應ᄒᆞ리니湛露ㅣ곳놀애예브르ᄂᆞᆫ그리로나

天意高難問人情老易悲 하ᄂᆞᆳᄠᅳ든노파묻ᄌᆡ어렵거니와사ᄅᆞᄆᆡᄠᅳ든늘근대쉬이슬프도다

樽前江漢闊後會且深期 言相期之深이如江漢也ㅣ라○樽앏ᄑᆡ江漢이어위니後에도몰기피期約ᄒᆞ얏다

季夏送鄉弟韶陪黃門從叔朝謁 黃門侍郎

도외얫도ᄉᆞ니 일홈난 지븐 社陵人 사ᄅᆞ미

게나지아니ᄒᆞᄂᆞ니라 比來相國兼安蜀歸赴朝廷已

入秦 요ᄉᆞ이 相國이 조쳐 蜀을 便安케ᄒᆞ고 朝廷에 도라가ᄒᆞ다 秦에 드놋다 捨

舟策馬論兵地拖玉腰金報主身 言二人이 同行ᄒᆞ니라

可以論兵ᄒᆞ리니라 下句ᄂᆞᆫ 專指鴻漸ᄒᆞ니라○ ᄇᆡᄅᆞᆯ ᄇᆞ리고 ᄆᆞᆯ 타가며 兵事 議論ᄒᆞ논 싸히

오 玉ᄋᆞᆯ 그ᄉᆞ며 金ᄋᆞᆯ 허리에 ᄯᅴ여 님그믈 갑ᄉᆞᆸᄂᆞᆫ 모미로다 莫度清秋吟

[illegible][illegible]早聞黃閣畫麒麟 此ᄂᆞᆫ 勉諭衛의 成功之後에 莫留於蜀而 急赴朝廷ᄒᆞ야 畫像于麟閣也ㅣ니라○몬ᄃᆞᄀᆞ올희 칫돌아미 덥ᄉᆞ힐서 글 지내디 말라 黃閣애 麒麟에 그리시요ᄆᆞᆯ 일 듣고져 ᄒᆞ노라

送梓州李使君之任

籍甚黃丞相能名自潁川 此ᄂᆞᆫ 以黃霸로 期李使君也ㅣ라○籍甚ᄒᆞᆫ 黃丞相의 能ᄒᆞᆫ 일후미 潁川으로브트니라

近看除刺史還喜得吾賢 요ᄉᆞᅀᅵ예 刺史 除授ᄒᆞ요ᄆᆞᆯ 보고 도로혀 우리 어딘 ᄉᆞᄅᆞᆷ 시드作블 깃노라

…로 몸조ᄉᆞ로 이 너기노리 不作臨岐恨惟…

聽擧最先 擧最先ᄋᆞᆫ 以謙最로 先被擧也ㅣ라 ○ ᄀᆞᆯ거리ᄅᆞᆯ 臨ᄒᆞ야 셔슬흐ᄂᆞᆫ 짓디 아니ᄒᆞ고 擧最예 몬져 호ᄆᆞᆯ 오직 듣고져 ᄒᆞ노다

火雲揮汗日山驛醒心泉 블ᄀᆞᆮᄒᆞᆫ 구루멘 ᄯᆞᆷ ᄲᅳ리ᄂᆞᆫ 나리오 묏 驛앤 ᄆᆞᅀᆞᄆᆞᆯ ᄭᆡ오ᄂᆞᆫ ᄉᆡ미로다

遇害陳公殞于今蜀道憐君行射洪縣為我一潸然 陳子昂ᄋᆞᆫ 射洪人이니 被縣令之 因ᄒᆞ야 憂憤死獄中ᄒᆞ니라 ○ 害

ᄅᆞᆯ 밋니러 陳公이 주그니 이제 蜀人 길헤셔 슬ᄒᆞ니 그ᄃᆡ 射洪ㅅ ᄆᆞᅀᆞᆯ 취 가거든 날 爲ᄒᆞ야 ᄒᆞᆫ번 눉믈 흘리라

送陵州路使君之任

王室比多難高官皆武臣幽燕通使者岳牧用詞人 比ᄂᆞᆫ 近也ㅣ라○王室이 요ᄉᆞ이예 兵難이 하니 노ᄑᆞᆫ 마ᅀᆞ래다 武臣이러니 幽燕에 使者ㅣ 通ᄒᆞ야 ᄃᆞᆫ니니 四岳羣牧ᄋᆞᆫ 글 ᄒᆞᄂᆞᆫ 사ᄅᆞᄆᆞᆯ ᄡᅳ시ᄂᆞᆺ다

國待賢良急君當擢新 나라해셔 賢良 기드류믈 샐리ᄒᆞ시니 그ᄃᆡ ᄅᆞᆯ 취ᄒᆞ

坤破瘡痍府庫貧 ㅣ라 ○사호매 乾坤이 허

뎻고 헐므우메 府庫ㅣ 기난ᄒᆞ도다 衆僚宜潔白萬役但平均 여러 僚佐ᄂᆞᆫ 潔白ᄒᆞ니ᄅᆞᆯ ᄇᆞ미 맛당ᄒᆞ고 여러 가짓 役事ᄂᆞᆫ 오직 고루게 ᄒᆞᆯ디니라

霄漢瞻佳士泥塗任此身 上句ᄂᆞᆫ 指使君ᄒᆞ고 下句ᄂᆞᆫ 甫ㅣ 自謂라

○하ᄂᆞᆯ해 녀던 士ᄅᆞᆯ 보고 즌ᄒᆞᆰ 긔 이 모ᄆᆞᆯ 므던히 너기노라

秋天正搖落 ᄀᆞᅀᆞᆳ 하ᄂᆞᆯ해 正히 이어 ᄠᅥ러디

回首大江濱 ᄂᆞ니 큰 ᄀᆞᄅᆞᇝ ᄀᆞᅀᅵ셔 머리 돌아

ᄇᆞ라노라

ㆍ江亭王閬州筵餞蕭遂州

離亭非舊國春色是他鄕 여희ᄂᆞᆫ 亭子ᄂᆞᆫ 녯 나라히 아니오 봆 비치 이 다ᄅᆞᆫ ᄆᆞ올히로다

老畏歌聲短愁從舞袖長 늘거셔 놀앳 소리 뎌루믈 전노니 시르믄 메ᄂᆞᆫ 춤 츠ᄂᆞᆫ ᄉᆞ매 기로 몰므던히 너기노라

二天開寵餞五馬爛生光 ᄆᆞᅀᆞᆯ 원ᄋᆞᆫ 二天이라 ᄒᆞᄂᆞ니 此ᄂᆞᆫ 美王閬州之開餞筵也ㅣ라○두 하수리 榮寵ᄃᆞ왼 餞筵ᄋᆞᆯ 여니 다ᄉᆞᆺ ᄆᆞ리 므르니기 비치 나도다

川

送鮮于萬州遷巴州

京兆先時傑琳琅照一門 萬州之父仲通嘗爲京兆尹ᄒᆞ니라 ○京兆ㅅ녯時節ㅅ俊傑이니 구스리 ᄒᆞᆫ 家門에 비취엿도다 朝廷偏注

意接近與名藩 言萬州與巴州로相近也ㅣ라 ○朝廷이 偏히 ᄠᅳ들 네게 브텨 接近ᄒᆞᆫ 일훔난 藩屛을 주시도다 祖帳維舟數寒江觸石

喧 祖餞ᄒᆞ논 帳애 ᄇᆡ ᄆᆡ요ᄆᆞᆯ ᄌᆞ조 ᄒᆞ니 ᄎᆞᆫ ᄀᆞᄅᆞ미 돌해 다텨 우르놋다 看君妙

爲政他日有殊恩 그듸의微妙히政治호ᄆᆞᆯ보ᄂᆞ니다ᄅᆞᆫ나래殊異ᄒᆞᆫ恩寵이이시리라

潭州送韋員外迢牧韶州

炎海韶州牧風流漢署郎 더운바ᄅᆞᆳ韶州ㅅ원이여風流ᄅᆞ왼漢ㅅ마ᄋᆞ랫郎官이로다

分符先令望同舍有輝光 甫ㅣ與迢로同爲郎故로言同舍也ㅣ라 ○符節ᄂᆞᆫ호ᄆᆞᆯ어딘聞望잇ᄂᆞᆫ사ᄅᆞ미몬져ᄒᆞ니ᄒᆞᆫ지븨사ᄅᆞ미게비치잇도다

白首多年疾秋天昨夜凉 셴머

江畔長沙驛相逢纜客船에서르맛나다

그내비를 비요라 大名詩獨步小郡海西偏 上句는 義

甫ᄒᆞ포 下句ᄂᆞᆫ 謂韶州라 ○큰일ᄒᆞ모ᄅᆞᆫ ᄒᆞ며ᄒᆞ오아ᄃᆞᆫ니져근ᄀᆞ올ᄒᆞᆫ바ᄅᆞᆯ西

人ᄃᆡᆨᄆᆞ이로다 地濕愁飛鵩天炎畏跕鳶 ᄯᅡ히저즈니누

ᄂᆞᆫ鵩鳥ᄅᆞᆯ시름ᄒᆞ고하ᄂᆞᆯ히더우니ᄠᅳ든ᄂᆞ쇠로기ᄅᆞᆯ저노라 去留俱失

意把臂共潸然 가ᄉᆞ니와머므러잇ᄂᆞ니왜다ᄇᆞᆯᄆᆞᆯ일ᄒᆞ리로소니

본ᄒᆞᆯ지바셔다ᄆᆞᆺ 늣글흘리노라

奉送王信州崟北歸

朝廷防盜賊供給愍誅求下詔選郎署傳聲

典信州追言朝廷이愍誅求而民困ᄒᆞ야選王崟而爲守令也ㅣ라○朝廷이盜賊을마고매供給에誅求호ᄆᆞᆯ어엿비너기샤詔書를ᄂᆞ리와郎官人ᄆᆞᅀᆞ래ᄀᆞᆯᄒᆡ야소리나니ᄆᆞᆫ信州를ᄀᆞᅀᆞᆷ알에ᄒᆞ도다

蒼生今日困天子嚮時憂

蒼生이오ᄂᆞᆳ나래窮困ᄒᆞ니天子ᄂᆞᆫ녯ᄢᅴ브터시름ᄒᆞ시니라

井屋有烟起

襄之樂而遠此之樓則有角聲也ㅣ라○

두드리고 놀애 브르린 오직 海甸이로소니 그르ᄂᆞᆫ 吹角ㅅ소리ᄂᆞᆫ 스싀로 묏樓에셔도다

白髮寢常早荒榛農復秋 셴머리에 잠자ᄆᆞᆯ 長常 일ᄒᆞ노니 거ᄎᆞᆫ 프서리예 녀름지ᅀᅵ ᄯᅩ 秋成ᄒᆞ리 머 잇도다

解龜逾臥轍遣騎覓扁舟 解龜ᄂᆞᆫ 任滿解龜印也ㅣ라 漢人臨淮太守侯霸ㅣ 被召ㅣ어ᄂᆞᆯ 百姓이 攀轅臥轍ᄒᆞ야 不許去ᄒᆞ니 此ᄂᆞᆫ 言信州之民이 欲留王鑒也ㅣ라 晉人劉長真이 遣騎ᄒᆞ야

覔張孝黨舡ᄒᆞ니 此ᄂᆞᆫ 比王崟之覔甫也ㅣ라○龜印을 글우메 술윗자최예 누수이라

와너므니 몰두닐 보내야져근 비ᄅᆞᆯ 엇놋다 **徐榻不知傒潁川何**

以酬 言王崟之待甫ㅣ如陳蕃之待徐孺子也ㅣ라 黃覇ㅣ為潁川太守ᄒᆞ니 比王

崟ᄒᆞ다○徐孺子의 榻을 ᄀᆞᆺ비 몰모ᄅᆞ시ᄂᆞ니 潁川을 므스글 벼가포려뇨 **塵生**

形管筆寒賦黑貂裘 甫ㅣ自歎不得歸尙書省而塵生筆管也ㅣ라

蘇秦이 貂裘弊라ᄒᆞ니 甫ㅣ自比ᄒᆞ다○드트론 블근 대롯 부데 낫고 치위ᄂᆞᆫ 거믄 貂皮

갓오새든 겁도다 **高義終焉在斯文去矣休** 亦甫ㅣ自歎이

ᄆᆞ구미ᄒᆞ리니고가ᄆᆞ리를ᄒᆞᄂᆞ…

佗雖北拜太史尚南留 尉佗ㅣ自稱南越王이어ᄂᆞᆯ陸賈說之ᄒᆞᆫ대佗ㅣ北面稱臣ᄒᆞ니比叱蕃이順伏也ㅣ라太史公이留滯周南ᄒᆞ니此ᄂᆞᆫ甫ㅣ自喻ㅣ라○尉佗ㅣ비록北녀그로절ᄒᆞ나太史ᄂᆞᆫ오히려南녀킈머므렛도다 軍旅

應都息寰區要盡收 軍旅ㅣ당당이다그ᄎᆞ리니寰區ᄂᆞᆫ다收復ᄒᆞᆯ미조ᄋᆞ로외니라 九重思諫諍入極念懷柔 入極은即入方

也ㅣ리라○九重에諫諍ᄒᆞ리ᄅᆞᆯᄉᆞ랑ᄒᆞ며八極을懷柔ᄒᆞ샤ᄆᆞᆯ思念ᄒᆞ노라 徒倚

瞻王室從容仰廟謨 此ᄂᆞᆫ望大臣之謨寧王室也ㅣ라○올마비겨

ᄒᆞ야王室ᄋᆞᆯ보고從容히廟堂ㅅ謀ᄅᆞᆯ울워노라 故人持雅論絶塞豁

窮愁 甫ㅣ言聞王崟之淸論ᄒᆞ니可以豁旅寓之愁也ㅣ라○버디됴ᄒᆞᆫ議論을가

지니먼ᄀᆞ애窮ᄒᆞᆫ시르미훤ᄒᆞ야가 復見陶唐理甘爲汗漫

遊 此ᄂᆞᆫ言將見天下ㅣ太平故로甘爲浪遊之遊也ㅣ니라○陶唐ㅅ다ᄉᆞ료ᄆᆞᆯ도로

보리로소니汗漫히노로ᄆᆞᆯ됴히너기노라

送蘇州李二十五長史丈之任

쇠니라 公侯終必復經術貴誇 賢父子

ㅣ以明經之學ᄋᆞ로相繼爲相ᄒᆞ니言長史ㅣ必繼家業也ㅣ라○公侯의子孫은ᄆᆞᄎᆞ

매반ᄃᆞ시興復ᄒᆞᄂᆞ니經術을ᄆᆞᄎᆞ매ᄂᆡ傳ᄒᆞ됴 食德見從事克家

何妙年 訟卦예食舊德이라ᄒᆞ며蒙卦예子克家ㅣ라ᄒᆞ니言長史ㅣ以妙年에

有德行而食祿也ㅣ라○德으로祿食호매일조차ᄃᆞᆫ뇨ᄆᆞᆯ보리로소니지블能히다

ᄉᆞ료매不모져몯나히로다 一毛生鳳穴三尺獻龍泉 龍泉

순劍名이니以鳳劍으로爲長史也ㅣ라○
츈더리鳳穴에너난ᄃᆞᆺᄒᆞ고석잣龍泉劍을
님금긔받ᄌᆞᆸ
ᄂᆞᆫᄃᆞᆺᄒᆞ도다

赤壁浮春暮姑蘇落海邊

姑蘇
臺ᄂᆞᆫ
在蘇州ᄒᆞ니言長史ㅣ乘舟ᄒᆞ야經赤壁而
至蘇州也ㅣ라○赤壁人므레春暮애비ᄡᅳ
수고姑蘇臺예바ᄃᆞᆺ
ᄆᆞ시ᄉᆞ려가놋다

客間頭最白惆悵此離筵

나그내ᄉᆞ이예머리산직세니
이ᄢᅴ희ᄂᆞᆫ돗골슬허ᄒᆞ노라

湖中送敬十使君適廣陵

相見各頭白其如別離何

서르보매제어곰
머리세니그여희

다몯주리깁스[illegible]

多 言使君之豪逸이如劒在匣中而氣騰시 며心淸이如玉壺之氷也ㅣ라○氣運이

서깃匣애엿거ᄀᆞ독ᄒᆞ돗고이 르믄玉壺애노하찬ᄃᆞᆺᄒᆞ도다 遭亂實漂泊

濟時曾琢磨 上句ᄂᆞᆫ甫ㅣ自謂오下句ᄂᆞᆫ言 使君이濟世之道ᄅᆞᆯ已經歷知

之也ㅣ라○亂ᄋᆞᆯ맛니러眞實로ᄇᆡ브ᄃᆞᆫ 니노니時節거리츄믈일ᄌᆞᆨᄀᆞ다ᄃᆞ마잇도다

形容吾較老膽力爾誰過 얼구ᄅᆞᆫ내저기 늘구니膽力ᄋᆞᆫ

너를 ᄂᆞ위니므료

秋晩岳增翠風高湖漢波 言別時之景이라 ○

ᄀᆞᅀᆞᆳ 나조히 뫼 프른 비치 더ᄒᆞ고 ᄇᆞᄅᆞ미 노ᄑᆞ니 ᄆᆞᆯᄀᆞᆫ 믈겨리 솟솟다

鶱騰訪知己淮海莫蹉跎

누라가 몸아ᅀᆞ 널보고 淮海예 어그르치 싯디 말라

ㅣ巫山縣에 汾州唐十八使君弟ㅣ宴別ᄒᆞ시어ᄂᆞᆯ 兼諸公이 携酒樂相送ᄒᆞ더니 率題小詩ᄒᆞ야 留于屋壁ᄒᆞ노라

臥病巴東久今年強作歸

巴東애 病ᄒᆞ야 숨건디 오라다니 올

소ᄂᆡ새ᄀᆞ두비흘리노라 詩人...

借光輝 諸公이 서르 빗리디 아니ᄒᆞ샤 ᄯᅳ리여 치여 서비 ᄎᆞᆷ 빌이 ᄂᆞ니

章梓州橘亭餞成都竇少尹得凉字

秋日野亭千橘香玉杯錦席高雲凉 ᄀᆞᅀᆞᆳ날 ᄆᆡᆺ亭子애 ᄀᆞ즌 橘이 곳다오니 玉잔과 錦돗긔 노ᄑᆞᆫ 구루미 서늘ᄒᆞ도다 主人送客何所作行酒賦詩殊未央 主人의 손 보내요매 므스글 ᄒᆞ료

깁수ᄀᆞᆯ네여ᄒᆞᆫ디ᄉᆞ믄ᄆᆞ 衰老應爲難離別
쟝다수디아니ᄒᆞ놋다
賢聲此去有輝光ᄂᆞᆯ구메당당시셔ᄒᆡ옴호미어려우니어던소리순
이가매빗나미시시리로다 預傳籍籍新京兆青史無勞
數趙張籍籍은言聲名之盛也ㅣ라趙廣漢張敞이皆爲京兆尹ᄒᆞ니成都ᄅᆞᆯ亦
號南京故로借京尹事ᄒᆞ야義之ᄒᆞ니라○籍籍ᄒᆞᆫ새京兆ᄅᆞᆯ미리傳ᄒᆞᄂᆞ니프른史記
예趙張쳬요몯이
비아나ᄒᆞ리로다

、江亭送眉州辛別駕昇之得蕪字

ᄒᆡ개니 沐浴ᄒᆞ노 別離傷老大意緒日荒蕪
ᄉᆞᆯ히 깃거ᄒᆞ놋다
여희요매 늘구믈 슬노
니 ᄠᅳ디 나날 거츠레라

奉送蜀州栢二別駕ㅣ將中丞命ᄒᆞ야赴
江陵ᄒᆞ야起居衛尚書ㅅ大夫人ᄒᆞ노니因
示行軍司馬位ᄒᆞ노라

中丞問俗畫熊頻愛弟傳書綵鷁新 栢別駕는中丞栢貞節之弟也ㅣ라○中丞이風俗ᄋᆞᆯ무로매곰그륜술위를ᄌᆞ조두ᄉᆞ니ᄉᆞ랑ᄒᆞᄂᆞᆫ아ᅀᆞ이글워를傳호매빗난鷁그륜새롭도다

遷轉五州防禦使起居八座太夫人 中丞이領夔峽忠歸萬五州防禦使ᄒᆞ다唐制예以六尚書左右僕射로爲八座ㅣ니時예衛伯玉이拜江陵羣牧檢校工部尚書ᄒᆞ고其母ᄅᆞᆯ加鄧國太夫人ᄒᆞ니라○다ᄉᆞᆺᄀᆞ올防禦使ᄅᆞᆯ올마ᄒᆞ고八座人太夫人行問安ᄒᆞᄂᆞ다

楚宮臘送荊門水白帝雲偷碧海春 言別時之景이라○

人빗곳ᄒᆞ되아ᄉᆞᄂᆞ니라

、送田四弟將軍시將夔州栢中丞命ᄒᆞ야起居江陵節度陽城郡王衛公幕ᄒᆞ노라

離筵罷多酒起地發寒塘셔희ᄂᆞᆫ돗기한수를보고니러가ᄂᆞᆫ다ᄒᆞᆯ서늘ᄒᆞᆫ모ᄉᆞ로셔나ᄂᆞ다回首中丞座馳牋異姓王異姓王ᄋᆞᆫ指衛伯玉ᄒᆞ다○中丞안잣ᄂᆞᆫ딜머리도로혀보고異姓王이글워를돌여가ᄂᆞ다

燕薊楓樹日鴈度麥城霜 言別時ᄒᆞ다○져비ᄂᆞᆫ신남깃뒤믈여희ᄂᆞᆫ그려기ᄂᆞᆫ보리심곤城人어리로ᄃᆡ나놋다 空醉山翁酒遙憐似葛強 葛強ᄋᆞᆫ山簡이愛將이니此ᄂᆞᆫ山簡ᄋᆞ로比中丞ᄒᆞ고葛強ᄋᆞ로比田將軍ᄒᆞ다○山翁의수를ᄒᆞᆫ갓醉ᄒᆞ니네의葛強ᄀᆞᆺᄒᆞ몰아ᄉᆞ라히돌노라

送蔡希魯都尉還隴右因寄高三十五書記

蔡子勇成癖彎弓西射胡 蔡子ㅣ勇猛ᄒᆞ미病이도외니활ᄋᆞᆯ

스른이先鋒으로므로엄고材質ᄋᆞᆫ排戰ᄒᆞᆫ몸

발뮈ᄒᆞ야須求ᄒᆞ샤ᄇᆞᄉᆞ시놋다 身輕一鳥過槍急萬人呼 모미

가비야소니ᄒᆞᆫ새디나가ᄂᆞᆫᄃᆞᆺ고 槍ᄋᆞᆯ샐리ᄒᆞ니萬人이우르놋다 雲幕隨開

府春城赴上都 上都ᄂᆞᆫ指京都ᄒᆞ다○구룸 ᄀᆞᄐᆞᆫ幕府에開府ᄅᆞᆯ조차갯ᄉ

더니봆城에 셔술소도다 馬頭金匼匝駝背錦模糊 金匼匝ᄋᆞᆫ

言金絡頭ᄒᆞ고錦模糊ᄂᆞᆫ言駝背에載物而

以錦帕으로覆之也ㅣ라○ᄆᆞᆯ머리옌金이

설겟고약대들어리 셴錦이설의벳도다 咫尺雪山路歸飛西海隅 雪山ㅅ길흘咫尺ᄀᆞ티ᄃᆞ니거 西海ㅅ모ᄒᆡ로ᄂᆞ라가ᄂᆞ다 上公猶寵錫

突將且前驅 言希魯ㅣ隨節度哥舒翰赴京 시러니翰은猶受寵錫而以留 시어ᄂᆞᆯ希魯ㅣ先還也ㅣ라○上公ᄋᆞᆫ소ᄒᆡ 려榮寵ᄒᆡ주거시ᄂᆞᆯ돌니ᄂᆞᆫ將軍이몬져도 라가 놋다

漢使黃河遠涼州白麥枯 言都尉의所 歸處ᄒᆞ다○ 漢人使者가던黃河ㅣ멀오 涼州엔힌밀ᄒᆡ시드도다 因君問消息好

在阮元瑜 以阮元瑜로比高適ᄒᆞ다○그디 를因ᄒᆞ야消息을묻노니됴히잇

地忽漫相逢是別筵 다시 後에 會集호ᄆᆞᆫ 아 노라어ᄂᆞ샤고믄드시
서르 맛보니 이셔 취ᄒᆞᆫ 돗기로다 不分桃花紅勝錦生憎柳
絮白於緜 此ᄂᆞᆫ 愁別故로 不愛景物也ㅣ라 ○복셩고지 블고미 錦이라와 더
오ᄆᆞᆯ 내 分엣 것 삼디 몯ᄒᆞ고 버듨개야 지 소오미라와 취요ᄆᆞᆯ ᄆᆞ짐믜노라 劒南
春色還無賴觸忤愁人到酒邊 劒南ᄋᆡᆺ 봆비 치 도ᄅᆞ혀 依

賴ᄒᆞᆯ 줄 업도소니 시름ᄒᆞ얀 사ᄅᆞ몰 다ᄃᆞᆫ 어거슬 ᄢᅴ 슰 ᄆᆞ쉬 오소놋다

丶送何侍御歸朝 甫ㅣ自註李梓州人 泛舟送上作이라

舟楫諸侯餞 車輿使者歸 ᄇᆡ타셔 諸侯ㅣ 餞送ᄒᆞᄂᆞ니 술위 ᄐᆞᆫ 使者ㅣ 도라가ᄂᆞ다

山花相暎發 水鳥自孤飛 뫼햇 고ᄌᆞᆫ 서르 비취여 뎻고 므렛 새ᄂᆞᆫ 제 ᄒᆞ오사 ᄂᆞᄂᆞ다

春日垂霜鬢 天隅把繡衣 侍御史ㅣ服繡衣니라 ○ 봆나래 서리 ᄀᆞᄐᆞᆫ 귀밋 터리 드리옛ᄂᆞ니 하ᄂᆞᆳ ᄀᆞᇫ애셔 繡衣ᄅᆞᆯ 자보라

故人從此去 寥落寸心違 故人이 일로브터 가

文場也ㅣ라○머리ᄎᆞ자와藥人비들주入고여희요몰슬혀글ᄒᆞ노ᄊᆡ해오도다

幕旌旗動歸軒錦繡香 幕府에드니旌旗ㅣ뮈리로소니가ᄂᆞᆫ술위옌錦繡ㅣ곳답도다

時應念衰疾書迹及滄浪 甫ㅣ以所居浣花溪로爲滄浪也ㅣ니言侍御ㅣ寄書於甫也ㅣ라○ᄢᅵ로당당이내衰疾을ᄉᆞ랏ᄒᆞ야글쇠리滄浪ᄉᆡ미처오리로다

送許八拾遺의歸江寧覲省ᄒᆞ노라 甫ㅣ

昔時예嘗客遊此縣ᄒᆞ야於許生處에乞

瓦棺寺ㅅ維摩圖樣ᄒᆞ니志諸篇末ᄒᆞ노라

詔許辭中禁慈顏赴北堂慈顏ᄋᆞᆫ母顏也ㅣ라○詔書로中禁녀희요ᄆᆞᆯ許ᄒᆞ시니慈愛ᄒᆞ시ᄂᆞᆫᄂᆞᆺ보리라北堂ᄋᆞ로가ᄂᆞ다

聖朝新孝理祖席倍輝光祖席ᄋᆞᆫ祖祭飮餞之席이라○聖朝ㅣ孝道로다ᄉᆞ리샤ᄆᆡ새로이ᄒᆞ시니祖祭ᄒᆞᄂᆞᆫ돗기더욱빗나도다

內帛擎偏重宮衣著

言矛其 許八이 滄歸江寧而閣當潛

ᄒᆞᄂᆞ니 來秋에 期以還京也ㅣ라 ○ 보미 雜人人나 ᄎᆞᆷ조ᄋᆞᆷᄒᆞ야니 ᄆᆞᅀᆞᆯ히 져비 서ᄂᆞᆯᄒᆞᆫ

저ᄅᆞᆫ期約ᄒᆞ얏다 **賜書誇父老壽酒賽城隍** 주샨 글워ᄅᆞᆯ 父

老더브러 자랑ᄒᆞ고 獻壽ᄒᆞᄂᆞᆫ 술로 城隍ᄋᆞᆯ 이바도리로다 **看畫曾飢渴**

追蹤恨淼茫 그리ᄆᆞᆯ 보고 식 주ᄌᆞ리며 목ᄃᆞ라ᄃᆞᆺ호니 蹤迹ᄋᆞᆯ 追思ᄒᆞ고 아

ᄋᆞ라호몰 슬노라 **虎頭金粟影神妙獨難忘** 顧愷之ㅣ 小子

虎頭ㅣ니 畫維摩詰於瓦棺寺ㅅ北壁ᄒᆞ니
維摩ᄂᆞᆫ 即過去世ㅅ金粟如來니라 ○ 虎頭
의 그륜 金粟如來ㅅ影子ᄅᆞᆯ 神妙
호ᄆᆞᆯ ᄎᆞ솔오너조미 어렵도다

惠義寺園送辛員外

朱櫻此日垂朱實郭外誰家負郎臼 블근 櫻桃ㅣ 이
나래 블근 여르미 드렛ᄂᆞ니 城郭 밧긔 뉘 지비 城郭ᄋᆞᆯ 졋ᄂᆞ받고 萬里相逢貪
握手高寸御望足離筵 萬里예셔 서르 맛보아 손목 자보ᄆᆞᆯ 貪ᄒᆞ노
니 노ᄑᆞᆫ 지조ᄅᆞᆯ 슬위 ᄇᆞ라 어여ᄒᆞᆯ 도기ᄅᆞᆯ 足ᄒᆞ도다

두납고 衰殘ᄒᆞ고 조ᄅᆞᆯ 슬히ᄇᆞ라 니 사ᄅᆞ미 개 갓가와 갯도다 同舟昨日何

由得並馬今朝未擬回 下句ᄂᆞᆫ 欲隨歸也ㅣ라○어제 날비 계ᄒᆞᆫ 뎌 이쇼ᄆᆞᆯ 어느 ᄆᆡ로 어드료 오ᄂᆞᆳ 아ᄎᆞᄆᆡ ᄆᆞᄅᆞᆯ ᄀᆞᆯ와 타셔 도라오고져 너기디 아니ᄒᆞ노라

直到緜州始分手江頭樹裏共誰來 ᄭᅳᆫ 緜州예 가 비롯 여희디도소니 ᄀᆞᄅᆞᆺᄀᆞᆺ 나못소개 눌와다뭇 오려뇨

惠義寺送王少尹赴成都

冉冉谷中寺 娟娟林表峯 冉冉호 곬 뎌레 고온 수픐 밧긧 묏부리로다

欄干上處峻 結構坐來重 欄干 올아가 뇨 仔히 소푸 너미 설거디운 ᄃᆡ 안자쇼매 重疊ᄒᆞ도다

騎馬行春徑 衣冠起暮鍾 몰타 봆길헤 티ᄃᆞ니 衣冠이 나죗 붑 티거놀 니러가놋다

雲門青寂寂 此別恨相從 구룸 낀 門이 퍼러ᄒᆞ야 괴외ᄒᆞ니 이 여희요매 서르 조차 ᄃᆞᆫ니뎐 이룰 슬노라

스로經三殿而去也ㅣ라○詔書ㄴ三殿으로셔조차마수니碑文은百蠻애가열리로다

野舘濃花發春帆細雨来 맛디빈돌가손고디퓟고븘빗돗긴ᄀᆞ논비오놋다

不知滄海上天遣幾時回 아디몯ᄒᆞ리로다滄海ㅅ우희셔하ᄂᆞᆯ히ᄒᆡ여곰어느ᄢᅴ돌아보낼고

、贈韋贊善別

扶病送君發自憐猶不歸 病ᄒᆞ매扶持ᄒᆞ야셔그ᄃᆡ가ᄆᆞᆯ보내노니ᄋᆞ회려도라가디몯ᄒᆞ몰내늘노라

祇應盡客淚復作掩荊扉 오직당당이나그내눈므를다수고도로가ᄉᆡ門다도몰ᄒᆞ리로다

江漢故人少音書從此稀 江漢ᄉᆡᆺ비디져그니音書ㅣ일로브터드믈리로다

往還二十載歲晩寸心違 가락소락ᄒᆞ야사괴요미스믈ᄒᆡ리니歲晩애죠고맛ᄆᆞᅀᆞ미어긔르쳬라

○送韋郞司直歸成都

溪竹抽梢合過墻 南溪ᄂᆞᆫ甫ㅣ草堂人浣花溪ㅣ니欲韋郎으로尋見也ㅣ니라○南溪옛대롤為ᄒᆞ야묻노니돋ᄂᆞᆫ가지다매너무미맛당ᄒᆞ니라

送魏二十四司直이 充嶺南掌選崔郎中의 判官ᄒᆞ노 兼寄韋韶州ᄒᆞ노라

選曹分五嶺使者歷三湘 言崔郎中이掌選嶺南ᄒᆞ야歷三湖

而去也ㅣ라○사ᄅᆞᆷ ᄆᆞᆯ 킈ᄂᆞᆫ 마ᅀᆞ리 五嶺에ᄂᆞᆫ 호니 使者ㅣ三湘ᄋᆞ로 디나가도다

才羡膂推薦君行佐紀綱

言魏ㅣ爲人의 所薦而爲判官ᄒᆞ야 佐崔郎中也ㅣ라○지죄ᄋᆞ 사ᄅᆞᆷ다와 推薦ᄒᆞ요ᄆᆞᆯ 膂當ᄒᆞ니 그듸 녀가 紀綱ᄋᆞᆯ 도ᅀᆞ리로다

佳聲期共遠雅節在周防

ᄃᆞ혼 소리ᄅᆞᆯ 다ᄆᆞᆺ 믜리 ᄠᅥ듀ᄆᆞᆯ 期望ᄒᆞ노니 ᄆᆞᆯᄀᆞᆫ 節介ᄂᆞᆫ 두르마고 마ᄋᆞᆯ 잇ᄂᆞ니라

明白山濤鑑嫌疑陸賈裝

晉人山濤ㅣ典選ᄒᆞ니 戒魏之佐選이 公也ㅣ라 漢人陸賈ㅣ說尉佗ᄒᆞᆫ대 賜槖中裝千金ᄒᆞ니 勉魏之廉也ㅣ라○山濤ㅣ 보미 ᄇᆞᆯᄀᆞ니 陸賈의 行裝ᄋᆞᆯ 疑心ᄒᆞ리로다

遣給事中南巨川ᄒᆞ야報聘而楊이佐巨川以行ᄒᆞ니라

送遠秋風落西征海氣寒 먼ᄃᆡ보내요매ᄀᆞᅀᆞᆳᄇᆞᄅᆞ미ᄠᅥ러뎌부ᄂᆞ니西人녀크로가매바ᄅᆞᆳ氣運이칩도다

帝京氣祲滿人世別離難 ᄃᆡ올ᄒᆡᆺ氣祲이ᄀᆞ득ᄒᆞ니人世예여희요미어렵도다

絶域遙懷怒和親願結懽 먼ᄯᅡ해셔아ᅀᆞ라히怒ᄒᆞ논먹디니和親ᄒᆞ야懽樂을ᄆᆡᆺ

고져 願ᄒᆞ놋다 勑書憐贊普兵甲望長安 贊普ᄂᆞᆫ吐蕃王名이라 望長安ᄋᆞᆫ欲助朝廷誅賊也ㅣ라○勑書로 贊普를 어엿비 너기시니 兵甲가지고 長安ᄋᆞᆯ ᄇᆞ라놋다

宣命前程惡惟良待士寬 言南ㅌ川이 欲宣帝命而惡行ᄒᆞ며 又有良善之德故로 待楊判官이 寬弘也ㅣ라○王命ᄋᆞᆯ 베프리라ᄒᆞ야 길ᄒᆞ로 나아가ᄆᆞᆯ 섈리ᄒᆞ니 어디러 人士待接호ᄆᆞᆯ 어위키ᄒᆞ놋다

子雲清自守今日起為官 此ᄂᆞᆫ 楊子雲으로 比楊判官也ㅣ라○子雲이 ᄆᆞᆯ기 제 모ᄆᆞᆯ 가졧더니 오ᄂᆞᆳ날 니러 벼슬ᄒᆞ놋나

岳瀆方投筆傷時即

拂廬乾 番人이 聯毳帳以居를 號拂廬ㅣ라 ○ ᄠᅳ리 ᄉᆞᆯ지니 番엣 ᄆᆞ리 健壯ᄒᆞ고 누니 하도 시욱 지비 ᄆᆞᄅᆞ도다

愼爾參籌畫從玆正羽翰 네의 籌畫參預호ᄆᆞᆯ 삼가ᄒᆞ라 일로 브터 ᄂᆞᆯ개를 고텨 ᄂᆞᆯ리로다

歸來權可取

九萬一朝摶 言楊判官이 還來而飛騰雲路ㅣ 如大鵬之摶扶搖而上九萬里也ㅣ다 ○ 도라와 權勢를 어루 어드리니 九萬里를 ᄒᆞᄅᆞᆺ 아ᄎᆞ미 수라 오ᄅᆞ리로다

送李八秘書赴杜相公幕

青簾白舫益州来巫峽秋濤天地回 프른발와흰비로益州로셔오니巫峽엣ᄀᆞᅀᆞᆳ믌겨른天地를횟도로혀ᄂᆞᆫ듯ᄒᆞ도다

石出倒聽楓葉下櫓搖背指菊花開 돌히내미니ᄀᆞ。우횟신나못닙듀믈갓고로듣고櫓를이ᅀᅥ비두루니菊花의픠쇼몰뒤도라ᄀᆞᄅᆞ치리로다

相府今晨發恐失佳期後命催 謂相公이催李秘書也ㅣ라○相府에두로몰貪ᄒᆞ야오ᄂᆞᆳ새배나가ᄂᆞ니됴ᄒᆞᆫ期約올일흘가저허後엣命으로

大家東征逐子回風生洲渚錦帆開 曹世叔의妻班昭ㅣ號大家ᄒᆞ니家ᄂᆞᆫ音姑ㅣ니此ᄂᆞᆫ比判官之母ᄒᆞ다○大家ㅣ東으로가매아ᄃᆞᄅᆞᆯ조차도라가ᄂᆞ니ᄇᆞᄅᆞᆷ나ᄂᆞᆫ믌ᄀᆞᅀᅵ錦으로ᄒᆞᆫ빗돗ᄀᆞᆯ이ᄠᅳᆺ다

青青竹笋迎船出白白江魚入饌來 孟宗이母ㅣ好食ᄒᆞ이어ᄂᆞᆯ冬月애笋爲之生ᄒᆞ니라姜詩之母ㅣ嗜魚膾어ᄂᆞᆯ舍側水에出雙鯉ᄒᆞ니皆至孝所感故로此애亦

言王判官之孝ᄒᆞ다○므른竹箭으비로마지돌고헤산ᄀᆞᄐᆞ맷고기ᄂᆞᆫ차바내드러오ᄂᆞᆺ다

離別不堪無限意艱危深仗濟時才 여희요매그지업슨ᄠᅳᆮ들이그디몯ᄒᆞ리로소니어려운제時節거느리칠지조ᄅᆞᆯ기피依仗ᄒᆞᄂᆞᆺ다

黔陽信使應稀少莫怪頻頻勸酒盞 黔陽앤音信가ᄆᆞᆫ사ᄅᆞ미당당이져그리니ᄌᆞ조酒盞勸호ᄆᆞᆯ怪異히너기디말라

、送韋書記赴安西

夫子歘通貴雲泥相望懸 夫子ㅣ믄드시通貴ᄒᆞ니구룸과ᄒᆞᆰ

欲浮江海去此別意茫然 江海예 ᄇᆡ ᄠᅴ외나 가고져 ᄒᆞ노니 이 여희ᄉᆞ매 ᄠᅳ디 아ᅀᆞ라ᄒᆞ도다

鄭城西原送李判官兄武判官弟赴成都府

憑高送所親久坐惜芳辰 노ᄑᆞᆫ ᄯᅡᄒᆞᆯ 브터셔 親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보내

노니오래산자ᄂᆡ곳다온ᄇᆞᆯ삿기노라 遠水非無浪他山自有春 上句ᄂᆞᆫ言行路之苦ᄒᆞ고下句ᄂᆞᆫ言成都之好ᄒᆞ다○먼므렛믌겨리업디아니코다ᄅᆞᆫ뫼헨뎔로보미잇ᄂᆞ니라 野花隨處發官柳著行新 ᄆᆡᇂ고지ᄯᅡ홀조차펫고그윗버드른行列을브터새롭도다 天際傷愁別離遙何太頻 하ᄂᆞᆳᄀᆞ이셔시름ᄒᆞ야여희요ᄆᆞᆯ슬노니여희논ᄠᅳ든엇뎨키ᄌᆞᄌᆞ뇨

、別崔潩因寄薛璩孟雲卿

志士惜妄動知深難固辭潩ㅣ赴湖南幕職

쇼오직磷緇티아니호몰取홀디니라 夙夜聽憂主飛騰急濟

時일쪔그리님금시름호몰드로니ᄉ 라니時節거리츄믈샐리ᄒ숫다 荊州

過薛孟爲報欲論詩 荊州옛薛孟올마조보 아도그를議論코져ᄒ

더라爲ᄒ 야니ᄅ라

送王十六判官

客下荊南盡君今復入舟나그내荊南ᄋᆞ로수려가ᄆᆞᆯ다ᄒᆞ야
늘그ᄃᆡ이제ᄯᅩ비예드놋다 買薪猶白帝鳴櫓少沙頭上句
ᄂᆞᆫ言甫ㅣ在夔州人所為ᄒᆞ다少ᄂᆞᆫ猶少頃也ㅣ니言判官이舟至江陵而泊於沙頭ᄒᆞ
야留少頃也ㅣ라○섭나모사모白帝城엣일ᄀᆞᆮᄒᆞ니우ᄂᆞᆫ櫓ᄂᆞᆫ몰앳그테져근덧머믈
리로다 衡霍生春早瀟湘共海浮衡霍山앤봆빗나미이르
고瀟湘ᄋᆞᆫ바ᄅᆞᆳ믈와다ᄆᆞᆺᄠᅥᆺ도다 荒林庾信宅為仗主人留
信宅이在江陵ᄒᆞ니라○거츤수픐庾信의지븨主人ᄋᆞᆯ為ᄒᆞ야브터머믈리로다

디몯호라 餞爾白頭日 求懷丹鳳城 指長安ᄒᆞ다 ○머리 셴 나

래 너를 餞送ᄒᆞ야셔 丹鳳城을 니리 ᄉᆞ랑ᄒᆞ노라 遲遲戀屈宋 邈邈

卧荊衡 날호야셔 屈原宋玉ᄋᆞᆯ ᄉᆞ랑ᄒᆞ고 아ᅀᆞ라히 荊州衡山애 누어쇼라 魂

斷航舸失 天寒沙水清 言望覃二之去而斷魂悲傷也ㅣ라 ○비

몯 보게 가매 넉슬 그츠니 몰애 옛 므리 몰ᄀᆞ되 하ᄂᆞᆯ히 칩도다 肺肝若稍愈

亦上赤霄行 言歸帝都也ㅣ라○肺肝앳病 곳ᄒᆞ다가 져기 됴ᄒᆞ면 ᄯᅩ 하ᄂᆞᆯ해 올아 녀리라

重送劉十弟判官

分源豕韋派別浦鴈賓秋 言劉杜ㅣ同爲豕韋氏之後ㅣ라 月令엣 鴻鴈이 來賓이라 ᄒᆞ다○믌출히 豕韋氏예셔 ᄂᆞᆫ호여 흐르니 여희ᄂᆞᆫ 개옌 그려기 손ᄃᆞ외ᄂᆞᆫ ᄀᆞᅀᆞᆯ히로다

年事推兄忝人才覺弟優 言年歲之事로 推之면 甫ㅣ 忝爲兄也ㅣ라 下句ᄂᆞᆫ 美劉ᄒᆞ다○나ᄒᆞ론 兄이라 推尊호ᄆᆞᆯ 더러이요

고의 先我着鞭ᄒᆞ노라 ○ 나ᄂᆞᆫ 놀ᄀᆡ롤 ᄃᆞ리 워ᄒᆞᆫ 것 衰老ᄒᆞ니 너ᄂᆞᆫ 모져 채텨니 ᄃᆞᆫ디 머리

므디 아니ᄒᆞ놋다 本枝凌歲晩高義豁窮愁 詩예 本支百世

라ᄒᆞ니 指言兄弟ᄒᆞ다 ○ 本枝ㅣ 歲晩애 凌犯ᄒᆞ야 오니 네 노ᄑᆞᆫ 義예 窮ᄒᆞᆫ 시르미 훤ᄒᆞ

예라 他日臨江待長沙舊驛樓 다ᄅᆞᆫ 나래 ᄀᆞᄅᆞ몰 디러셔 기들

우리니 長沙ㅅ 녯 驛ㅅ 樓ㅣ니라

別蘇徯赴湖南幕

故人有遊子棄擲傍天隅 故人이 노닐 子ㅣ 잇ᄂᆞ니 ᄇᆞ리여 하ᄂᆞᆳ 모해 바라 ᄃᆞ니놋다 他日憐才命居然屈壯圖 다ᄅᆞᆫ 나래 셔 才命을 슬타니 넌즈시 壯大ᄒᆞᆫ ᄠᅳ를 구펫도다 十年猶塌翼絕倒爲驚呼 열ᄒᆡ를 오히려 ᄂᆞᆯ개를 드리웻도소 나 업드러 爲ᄒᆞ야 놀라 ᄇᆞᄅᆞ노라 消渴今如在提携愧老夫 ○此ᄂᆞᆫ 甫ㅣ 自謂라 消渴ㅅ 病이라 제 인ᄂᆞᆫ ᄃᆞᆺᄒᆞ니 사ᄅᆞᆷ 븨티들시 셔쇼 몸 늘근 노미 븟그리노라 豈知臺閣舊

辰當宇宙南嶽據江湖 言代宗이當宇而立ᄒᆞ시고湖南節度ㅣ立有南嶽地니라○北辰이宇宙를當ᄒᆞ야시니南嶽ᄋᆞᆫ江湖애브텃도다

國帶烟塵色兵張虎豹符 言兵亂이未息故로以虎符로發兵郡縣也ㅣ라○나라ᄒᆡ ᄂᆡ와 드틄 비ᄎᆞᆯ 帶ᄒᆞ얫고 兵事앤 虎豹ㅅ 符節을 폇도다

數論封內事揮發府中趨 此ᄂᆞᆫ預言蘇之任幕職事ᄒᆞ다○封疆산 핫ᄭᅴ를不

조議論ᄒᆞ고 시를 펴ᄒᆞ야 府中에 ᄃᆞᆫ니리로다 贈爾秦人策莫鞭轅

下駒 左傳에 秦人繞朝ㅣ 贈晉人士會以策ᄒᆞ니 策ᄋᆞᆫ 馬鞭也ㅣ니 贈人以策者ᄂᆞᆫ 把以贈謀策也ㅣ라 莫鞭轅下駒者ᄂᆞᆫ 勸用其謀於大事也ㅣ니라 ○비록 秦人ᄋᆡ 채ᄅᆞᆯ 주노니 멍에 아랫 ᄆᆞ야지ᄅᆞᆯ 티디 말라

、暮春將歸秦留別湖南幕府親友

水闊蒼梧野天高白帝秋 蒼梧ㅅ 미해 ᄀᆞ리서 위오 白帝ㅅ ᄀᆞ

…ᄎᆔᄒᆞ놋다 途窮那免哭身老不禁愁 길히 窮ᄒᆞ니 섯…

送李功曹之荊州充鄭侍御判官重贈

曾聞宋玉宅每欲往荊州 宋玉宅이在荊州ᄒᆞ니라○일즉宋玉ᄋᆡ지블듣고ᄆᆡ양荊州예가고져ᄒᆞ노라

此地生涯晚遙悲水國秋 此地ᄂᆞᆫ指甫의時居夔州ᄒᆞ고水國운指荊州ᄒᆞ다○이ᄯᅡ해生涯ㅣ느즈니水國ㅅᄀᆞᅀᆞᆯᄒᆞᆯ아ᄋᆞ라히슬노라

孤城一柱觀落日九江流

言李功曹의所經ᄒᆞ다○외로왼城엔一柱觀이오디ᄂᆞᆫᄒᆡ옌九江이흐르ᄂᆞ니라 使

者雖光彩 青楓遠自愁 荊楚애多青楓ᄒᆞ니라○使者ㅣ비록빗나나ᄐᆞ론신ᄂᆞ모셔리예먼ᄃᆡᄉᆞ싀로시름ᄒᆞ리라

╲東津送韋諷攝閬州錄事

聞說江山好 憐君吏隱兼 江山이됴호믈니ᄅᆞ거ᄂᆞᆯ드로니그ᄃᆡ의吏와隱과ᄅᆞᆯ兼ᄒᆞ몰憐愛ᄒᆞ노라

寵行舟遠泛 惜別酒頻

添 녀가ᄆᆞᆯ榮寵히ᄒᆞ노라ᄇᆡ를머리와벽수

ㅣ ᄒᆞᆫ縣宰 더潛이歎曰不能折腰事鄉里小兒ㅣ라ᄒᆞ니此ᄂᆞᆫ勸韋之敬禮者賢ᄒᆞ다○

다ᄃᆞ며ᄒᆞ다가屬縣에按行ᄒᆞ거든시러곰陶潛을므던히너기디마롤디니라

、送趙十七明府之縣

連城爲寶重茂宰得才新 秦昭王이以十五城으로易趙璧故로美趙氏之貴曰連城寶也ㅣ니라○城을니서주ᄂᆞᆫ珍寶ㅣ重ᄒᆞ니어딘貞을지조재

ᄅᆞᆫ쇠닐언ᄃᆞ다山雉迎舟楫江花報邑人此ᄂᆞᆫ用魯恭의為中
牟令馴雉事와潘岳의為河陽令種桃李ᄒᆞ야美趙明府ᄒᆞ다○뫼햇ᄭᅯᆼ은舟楫을맛고
ᄀᆞᄅᆞᇝ고ᄌᆞᆫᄆᆞᅀᆞᆳ사ᄅᆞᄆᆞᆯ알외리로다
論交翻恨晩臥病却愁
春사미ᄋᆞᆷ議論호ᄆᆞᆯ두위혀ᄂᆞ주ᄆᆞᆯ슬노니病ᄒᆞ야누어도로보ᄆᆞᆯ시름ᄒᆞ노라惠
愛南翁悅餘波及老身○南翁ᄋᆞᆫ指縣人ᄒᆞ다南녁늘그닌惠愛
ᄒᆞ샤깃게ᄒᆞ고나ᄆᆞᆫ恩波ᄅᆞᆯ내늘근모매밋게ᄒᆞ니
送鄭十八虔貶台州司户ᄒᆞ라ᄂᆞ傷其臨

믿더리 실ᄅᆞᆯ ᄒᆞ니 醉ᄒᆞᆫ 後에 長常늘 근 畫師ㅣ로라 일ᄏᆞᆮ다 萬里傷心嚴

譴日 百年垂死中興時 肅宗이 收復京師而虔以汙賊으로 見貶

ᄒᆞ니라 ○ 萬里예 므의여이 罪니벗논 나래 ᄆᆞᅀᆞᄆᆞᆯ 슬코 百年에 中興ᄒᆞ신 제 주구메 다ᄃᆞ랏도다

蒼黃已就長途往 邂逅無端出餞遲 뵈왓

비ᄒᆞ마 긴 길헤 나아가니 맛나로미 근 업서 나가 餞送호ᄆᆞᆯ 더듸 호라 便與先

生應末訣九重泉路盡交期 交契之期를 當盡於地下也ㅣ라○곤先生과다ᄆᆞᆺᄒᆞ야당당이ᄀᆞᆫ여희요미로소니九重ㅅ黃泉ㅅ길헤交期를다ᄋᆞ기라

暮冬送蘇四郎徯兵曹適桂州

飄飄蘇季子六印佩何遲 以蘇秦의佩六國印으로比蘇徯ᄒᆞ다○두루ᄃᆞᆫ니ᄂᆞᆫ蘇季子ㅣ여슷印조ᄎᆞᆯ엇뎨더듸ᄂᆞ뇨

早作諸侯客兼工古體詩 그일諸侯의소니ᄃᆞ외오古體옛그를조ᄎᆡ게지믈이ᄒᆞ놋다 爾

化久磷緇 磷緇ᄂᆞᆫ喻王化之衰薄ᄒᆞ니라○혓陽氣ㅣ처엄盛히뮈ᄂᆞ니님금敎化ᄂᆞᆫ오라사오ᄂᆞᆯ왓도다

爲入蒼梧廟看雲哭九疑 舜이葬九疑山ᄒᆞ니蘇徯의所經之處ㅣ리○爲ᄒᆞ야蒼梧人廟애드러구룸보고九疑山애울라

、送段工曹歸廣州

南海春天外工曹幾月程 南海ᄂᆞᆫ指廣州ㅣ라○南海ᄂᆞᆫ봆하ᄂᆞᆯ밧기니工曹ㅣ아몃ᄃᆞᆯ길고

峽雲籠樹小湖日落江明 峽엣구루믄남ᄀᆡ얼의여젹고ᄀᆞᄅᆞᆺ히ᄂᆞᆫᄀᆞᄅᆞ매뎌ᄇᆞᆯ도다

交趾丹砂重韶州白葛輕幸君因估客時寄錦官城 錦城ᄋᆞᆫ甫이一所롬ㅣ라○交趾예ᄂᆞᆫ丹砂ㅣ므겁고韶州옌힌츩오시가ᄇᆡ야오니幸혀그듸ᄂᆞᆫ흥졍ᄒᆞᆯ나그내ᄅᆞᆯ因ᄒᆞ야錦官城에時로브터보내라

送孟十二倉曹赴東京選

春鞏縣ᄋᆞᆫ在東都ᄒᆞ니라○ᄆᆞᅀᆞᆷ바ᄅᆞ매楚人ᄃᆡ서ᄉᆞᆯᄒᆞ고밠누비鞏縣人梅花ㅅ보미로다

朝夕高堂念應宜彩服新期早還來也ㅣ라○아ᄎᆞᆷ나조ᄒᆡ高堂이思念ᄒᆞᄂᆞ니ᄃᆞᆼᄃᆞᆼ이彩服ᄋᆞᆯ새로이ᄎᆞ미맛당ᄒᆞ니라

晩秋長沙蔡五侍御飮筵送殷六參軍

歸渭州覲省

佳士欣相見慈顏望遠遊
佳士ᄅᆞᆯ서르아ᄅᆞᆫ
몯깃노니慈顏은
머리와셔노로
몯ᄇᆞ라놋다
甘從投轄飲肯作置書郵
陳
遵
이每飲賓에取客車轄ᄒᆞ야投井中ᄒᆞ더라
殷羨이爲豫章太守ㅣ어ᄂᆞᆯ都下人이多因
羨寄書ᄒᆞᆫ대皆棄水中曰羨不能爲置書郵
ㅣ라ᄒᆞ다○車轄드리티고술머굼조차호
ᄆᆞᆯᄃᆞᆯ히너기거니와글월둘
郵驛ᄃᆞ외요ᄆᆞᆯ肯許ᄒᆞ리아
高鳥黃雲暮寒
鐔碧樹秋
노ᄑᆞᆫ새ᄂᆞᆫ누른구룺나조히오서
늘ᄒᆞᆫᄆᆡ야미ᄂᆞᆫ프른나못ᄀᆞ술히
로
다
湖南冬不雪吾病得淹留
言冬暖ᄒᆞ야畏
消渴病故로欲

秦 그듸의能히님금ᄉᆞ랑ᄒᆞᅀᆞ오ᄆᆞᆯ嗟嘆ᄒᆞ고오래나그내ᄃᆞ외요매秦으로가ᄆᆞᆯ보노라

黃閣長司諫丹墀有故人 黃閣애기리諫爭호ᄆᆞᆯᄆᆞᅀᆞ리말리로소니丹墀예녯버디이시리로다

向來論社稷爲話涕霑巾 뎌조ᅀᆞᆷ쁴社稷을議論ᄒᆞ야爲ᄒᆞ야니르고눉므를手巾에저지노라

、送張二十參軍赴蜀州因呈楊五侍御

好去張公子通家別恨添 됴히가라張公子아지븐通히사필시여희논슬후믈더으노라

兩行秦樹直萬點蜀山尖 두줄로셧ᄂᆞᆫ秦人남기곧고萬點인蜀人뫼히뾰롣ᄒᆞ도다

御史新驄馬參軍舊紫髯 郄超ㅣ爲桓溫參軍이어늘府中이語曰髯參軍이라ᄒᆞ다○御史ᄂᆞᆫ새驄馬ㅣ오參軍ᄋᆞᆫ녯블근입거우지로다

皇華吾善處於汝定無嫌 詩皇皇者華ᄂᆞᆫ遣使臣也ㅣ니言侍御ㅣ爲使臣而乃甫의所厚善者ㅣ니於參軍에必無猜嫌이라ᄒᆞ니蓋薦之니라○皇華ᄂᆞᆫ내이대ᄒᆞᆫ사ᄅᆞ미니네거긔一定

어희요ᄅᆞᆯ 보내ᄂᆞᆫ 듯기로다

帝鄉愁緒外春色淚痕邊 님금 겨신ᄃᆡᄂᆞᆫ 시름ᄂᆞᆫ 밧기오 봆 비ᄎᆞᆫ 눈므른 그젓ᄀᆞ이로다

見酒須相憶將詩莫浪傳 詩ᄂᆞᆫ 即甫의 送別之作이라 ○ 술 보와ᄃᆞᆫ 모로미 서르 ᄉᆞ랑ᄒᆞ고 글 가져다가 쇽졀업시 傳ᄒᆞ디 말라

若逢岑與范為報各衰年 ᄒᆞ다가 岑과 다ᄆᆞᆺ 范을 맛보와ᄃᆞᆫ 各各 衰老ᄒᆞᆫ 나히로다 爲ᄒᆞ야 니ᄅᆞ라

送裴二虬作尉永嘉

孤島亭何處天涯水氣中亭ᄋᆞᆫ停也ㅣ라此ᄂᆞᆫ言永嘉ㅣ在海邊也ㅣ라○외로왼셔미어듸잇ᄂᆞ니오하ᄂᆞᆳᄀᆞᆺ믌氣運人가온ᄃᆡ로다故人官

就此絶境與誰同故人이벼슬ᄒᆞ야세나사가ᄉᆞ니언ᄯᅴ해ᄂᆞᆯ와다뭇同ᄒᆞ려ᄒᆞᆫ隱吏逢梅福遊山憶謝公梅福이變姓名ᄒᆞ고爲吳市門卒ᄒᆞ니乃隱吏也ㅣ라謝靈運이守永嘉ᄒᆞ야好遊山水ᄒᆞ니라○수엇ᄂᆞᆫ吏ᄅᆞᆯ梅福ᄋᆞᆯ맛보고뫼해노로몰謝公ᄋᆞᆯᄉᆞ랑ᄒᆞ리로다扁舟吾已就把釣

公ᄋᆡ ᄠᅳᆮ 후니라 ○ 逍遙公ᄋᆡ 後子孫이 世예
어듸니하니 너 보내노라 비ᄅᆞᆯ 미ᄒᆞ야셔 이 돗
글 앗기노라 念我能書數字至將詩不必萬人傳
나ᄅᆞᆯ ᄉᆞ랑ᄒᆞ야 能히 두어 字ᄅᆞᆯ 서 보낼다 내 그를 가져가 구티여 萬人의게 傳티 말라
時危兵甲黃塵裏日短江湖白髮前 사홈ᄒᆞᄂᆞ 누른
ᄃᆞ틀 소개 時節이 바ᄃᆞ랍고 ᄀᆞᄅᆞᆷ 셴 머릿살 ᄭᅱ ᄒᆡ더로도다 古往今來皆

淛淩斷腸分手各風烟 言古今애皆傷別也ㅣ라○비디나가며

이제소매다수수니소ᄂᆞᆯ노화제여

곰ᄇᆞᄅᆞᆷ서리로가매애ᄅᆞᆯ긋노라

冬晩送長孫漸舍人歸州

參卿休坐幄蕩子不歸鄕 甫ㅣ昔參謀幕府而今罷ᄒᆞ니是乃

休坐帷幄也ㅣ라蕩子ᄂᆞᆫ亦甫ㅣ自謂라○

參謀ᄒᆞᄂᆞᆫ사ᄅᆞ미帷幄애앉디아니ᄒᆞ고遊

蕩ᄒᆞᄂᆞᆫ子ㅣ本鄕애가디몯ᄒᆞ리라

南客瀟湘外西戎鄠杜傍 西戎ᄋᆞᆫ吐蕃이라鄠縣杜陵은在長安ᄒᆞ다

○瀟湘밧긔南녁크로나그내ᄃᆞ외요니鄠

ᄉᆞ랑ᄒᆞ고 닉ᄂᆞᆫ수라셕 가ᄂᆞᆫ 빗대로 조ᄎᆞ라 雲晴鷗更舞風逆鴈

無行 言別時景ᄒᆞ다○구루미 개니 ᄀᆞᆯ머기 다시 춤츠고 ᄇᆞᄅᆞ미 거스리니 그려기

行列이 업도다 匣裏雌雄劒吹毛任選將 言盡行以劒也ㅣ라

○匣산햇 암수 갈ᄒᆞᆯ 터리 블리를 ᄀᆞᆯᄒᆡ야 가져가ᄆᆞᆯ 任意로 ᄒᆞ라

、奉送卿二翁統節度鎮軍還江陵

火旗還錦纜白馬出江城言卿翁이建旗乘馬ᄒᆞ야出城赴舟

也ㅣ라○블ᄀᆞᄐᆞᆫ旗ㅣ錦빗주레도라가ᄂᆞ니힌ᄆᆞ리江城으로ᄠᅥ나가놋다嘹唳

吟笳發蕭條別浦清수수워려ᄒᆞᆫ픗뎟소리나ᄂᆞ니蕭條ᄒᆞᆫ여희

ᄂᆞᆫ갯므리ᄆᆞᆰ도다寒空巫峽曙落日渭陽情詩예我送舅氏

ᄒᆞ야日至渭陽이라ᄒᆞ니甫ㅣ今送崔舅故로云ᄒᆞ니라○ᄎᆞᆫ寒空앳巫峽入새배오ᄃᆡ

ᄂᆞᆫ취센渭陽엣ᄠᅳ디로다留滯嗟衰疾何時見息兵머므러

늘근病을슬코니어느지괴兵馬ㅣ그추믈보려뇨

訪庭闈 庭闈ᄂᆞᆫ指親之所居ᄒᆞ다○내ᄒᆞ마아ᅀᆞ와누의ᄅᆞᆯᄎᆞ자볼지비업스니

그듸ᄂᆞᆫ이제어듸가庭闈ᄅᆞᆯ무르ᄂᆞ다

黃牛峽靜灘聲轉白馬江寒樹影稀 黃牛峽ᄋᆡ寂靜ᄒᆞ니여흘소리옮고白馬江이서늘ᄒᆞ니나못그르메드므도다

此別應須各努力故鄉猶恐未同歸 이여희요매당당이보ᄅᆞ매제여곰힘ᄡᅳᆯ디니故鄉애ᄉᆞ치려ᄒᆞᆫᄢᅴ가디몯ᄒᆞᆯ가젼노라

長沙送李十一銜

與子避地西康州洞庭相逢十二秋 西康州ᄂᆞᆫ即同谷縣이라○그듸와다ᄆᆞᆺ초ᅀᅡ西康州예ᄯᅡ홀避ᄒᆞ요니洞庭에서르맛보니열두ᄒᆡ로다

遠愧尚方曾賜履境非吾土倦登樓 甫ㅣ嘗為拾遺則蒙尚方之賜履니라非吾土ᄂᆞᆫ言非故鄉也ㅣ라○尚方애셔일즉신주던이를머리븟그리노니地境이내ᄯᅡ히아닐ᄉᆡ樓에오로ᄆᆞᆯᄀᆞᆺ바ᄒᆞ노라

久存膠漆應難並一辱泥塗遂晚收 陳重이典雷義로結交ㅣ知膠漆之

러유니븍뒷구룸과ᄎᆞ운菊花 에여희ᄂᆞᆫ시르미더으놋다

、別常徵君

兒扶猶杖策臥病一秋強 아ᄒᆡ扶持ᄒᆞ고오히려막대디퍼니病ᄒᆞ야누우미ᄒᆞᆫᄀᆞᅀᆞᆯ히남ᄂᆞ다

白髮少新洗寒衣寬總長 센머리터리져근거슬새로시수니치위옛오시어위오다기도다

故人憂見

及此別復相忘見及은猶言訪及이라○故人이시름ᄒᆞ야보라오니이여희유메수ᄃᆡ셔서르니서리아各逐萍流轉來書細作行細作行ᄋᆞᆫ유무에서르여희여셔ᄉᆞ랑ᄒᆞᄂᆞᆫᄠᅳ들해ᄡᅥ보내라ᄒᆞᄂᆞᆫ마리라○제여곰말와미흘러올마가ᄆᆞᆯ조ᄎᆞ소니ᄉᆞᄂᆞᆫ그를ᄆᆞᄀᆞ리行列을디ᄉᆞ라

丨陪江泛舟送韋班歸京得山字

追餞同舟日傷春一水間旣ᄎᆞ餞送ᄒᆞ야비예ᄒᆞᆫ디씻ᄂᆞᆫ나리ᄂᆡ보ᄆᆞᆯ슬ᄂᆞᆫᄒᆞᆫ 飄零為客久衰老羨君還

、公安애셔送李二十九弟晉肅의入蜀ᄒᆞ노니余ᄂᆞᆫ下沔鄂ᄒᆞ노라 公安ᄋᆞᆫ縣名이ㅣ오 沔鄂二州ᄂᆞᆫ屬漢陽ᄒᆞ니라

正解柴桑纜仍看蜀道行 柴桑은地名이라 ○柴桑앳비주를 正히글어蜀道로녀가ᄆᆞᆯ지조로보노라 檣烏相背發塞鴈一行

嗚 비대 옛 가마괴 서르 뒤도라 가ᄂᆞ니 ᄀᆞᆺ 그려기ᄂᆞᆫ ᄒᆞᆫ 주리 우ᄂᆞ다 南紀連

銅柱西江接錦城 上句ᄂᆞᆫ 甫의 所歸ㅣ오 下句ᄂᆞᆫ 李의 所行이라○南紀ᄂᆞᆫ 銅柱에 닛고 西江ᄋᆞᆫ 錦城에 다핫ᄂᆞ니라 憑將百錢卜飄泊問君

平 嚴君平이 賣卜於成都ᄒᆞ더니라 甫ㅣ 欲憑李ᄒᆞ야 問於君平也ㅣ라○온 도ᄂᆞᆯ 브려 占卜ᄒᆞᄂᆞ니ᄅᆞᆯ 보ᄃᆡ 도뇨 몰 君平ᄃᆞ려 무르라

送元二適江左 元結이라

亂後今相見秋深復遠行 亂後에 이제 서

自愛惜取次莫論兵 須溪ㅣ云戒其經過論兵ᄒᆞ니豈非藩鎭節度ㅣ有雜言者乎ㅣ리오○더나가ᄂᆞᆫ뒤ᄉᆞ싀로모ᄆᆞᆯ앗겨믄드시兵事ᄅᆞᆯ議論ᄒᆞ디말라

、送裴五赴東川

故人亦流落高義動乾坤 故人이ᄯᅩ流落ᄒᆞ얏ᄂᆞ니노ᄑᆞᆫ義ᄂᆞᆫ乾坤애뮈엿도다

何日通燕塞相看老蜀門 어ᄂᆞ나래燕人

ᄆᆞ이通거든서르보고 蜀門에셔늘그려쇼 東行應暫別北望苦

銷魂 東녀크로녀가미당당이잠간여희유 미니北녀크로ᄇᆞ라고심히넉슬수노

ᄀᆞᆨ 凜凜悲秋意非君誰與論 凜凜히ᄆᆞᅀᆞᆯ슬 논ᄠᅳ들그뒤사

니연눌와다뭇 議論ᄒᆞ리오

、贈別何邕

生死論交地何由見一人 사져죽져ᄒᆞ야사 피요몯議論ᄒᆞᆫ

ᄯᅡ해셔ᄂᆞ말ᄆᆡ로ᄒᆞᆫ 悲君隨燕雀薄宦走風

花滿眼傳語故鄉春 五陵이 在長安ᄒᆞ니 因邕之歸而起懷鄉之念이니라○五陵에 고지 누네 ᄀᆞᄃᆞ기 핏ᄉᆞ니 故鄉人 보미 가 말ᄉᆞ믈 傳ᄒᆞ라

、贈別鄭鍊赴襄陽

戎馬交馳際柴門老病身 사호맷 ᄆᆞᆯ 서르 ᄃᆞᆯ이ᄂᆞᆫ ᄀᆞ애 柴門에 늘근 病ᄒᆞᆫ 모미로다

把君詩過日念此別驚神 그듸 그를 자바

셔ᄂᆞᆯ론 더ᄂᆡ도ᄂᆡ 이 여희요 도ᄉᆞ랑코 ᄆᆞᅀᆞ몰 놀라노라 地闊峩眉晩天

高峴首春 峩眉山이在蜀ᄒᆞ고峴首ᄂᆞᆫ在襄陽ᄒᆞ니言鄭鍊이自蜀而赴襄陽故로如此云ᄒᆞ니라○峩眉人나ᄌᆞ최 희서위오峴首ㅅ보미하ᄂᆞᆯ최ᄂᆞᆸ도다 仆為

於耆舊內試覓姓龐人 龐德公은襄陽人이라欲鄭鍊之搜訪隱士ㅣ니라○為ᄒᆞ야늘근사ᄅᆞᆷ서리예 姓이龐인사ᄅᆞ몰비루수어더보라

重贈鄭鍊絶句

鄭子將行羅使臣囊無一物獻尊親 此ㅣ言其清廉

、送人從軍 時有吐蕃之亂이가

弱水應無地陽關已近天 無地ᄂᆞᆫ言弱水之廣也ㅣ라言從軍所歸之處ㅣ라○弱水예 ᄯᅡ 닶이 셔히 업스니 陽關ᄋᆞᆫ ᄒᆞ마 하ᄂᆞᆯ해 갓가오니라

今君度沙磧累月斷人烟 이제 그ᄃᆡ 沙磧을 건나가ᄂᆞ니 여러 ᄃᆞᄅᆞᆯ 人烟이 그츤 ᄯᅡ히라

好武寧論命封侯不計年 不計年은 ᄒᆞᆷ有

功即封이니所以激勉也ㅣ라○武事를ᄌᆞᆯ굴뎬엇뎨命을議論ᄒᆞ리오諸侯封호ᄆᆞᆯ취

믈혜디아니ᄒᆞ리라 馬寒防失道雪後錦鞍韉 ᄆᆞᆯ치위녜길

싈ᄒᆞ믈마그라누네錦鞍韉이ᄣᅥ디리라

、送遠

帶甲滿天地胡爲君遠行 甲니브니天地예ᄀᆞ독ᄒᆞ니므스그

라그ᄃᆡ머리녀가ᄂᆞ뇨 親朋盡一哭鞍馬去邊城 親ᄒᆞᆫ버디

ᄒᆞᆫ번우루믈ᄆᆞ칭ᄒᆞᄂᆞ니鞍馬ᄐᆞ고邊城으로가ᄂᆞ다 草木歲月晩關

二月頻送客東津江欲平 二月에ᄌᆞ조손ᄋᆞᆯ보내요니東津ㅅᄀᆞᄅᆞ미平코져ᄒᆞ놋다

烟花山際重舟楫浪前輕 너ᄉᆡ고지묏ᄀᆞᅀᆡ므거우니舟楫은믌결앏ᄑᆡ가ᄇᆡ얍도다

淚逐勸盃落愁連吹笛生 눈므른勸ᄒᆞᄂᆞᆫ酒盃ᄅᆞᆯ조차디고시ᄅᆞ믄부ᄂᆞᆫ뎟소리예니어나ᄂᆞ다

離筵不隔日那得易為情 여희ᄂᆞᆫ돗기나리즈ᅀᅳᆷ츠디아니ᄒᆞ

니엇뎨시러곰빋호몰수이ᄒᆞ리오

夏夜李尚書筵送宇文石首赴縣聯句

尚書ᄂᆞᆫ名之芳이오宇文은名或이라

愛客尚書重之官宅相賢 子美○魏舒ㅣ爲外家甯氏의所養이러니甯氏起宅이어ᄂᆞᆯ相者ㅣ曰當出貴甥이로다舒ㅣ曰當爲外氏ᄒᆞ야成此宅相이라ᄒᆞ니或이之芳之甥故로用宅相ᄒᆞ다○손ᄉᆞ랑ᄒᆞᄂᆞᆫ尚書ㅣ重ᄒᆞ니그위예가ᄂᆞᆫ지빗宰相이어디도다

酒香傾座側帆影駐江邊 之芳○술곳다

드므니 구룸니 픠곳고 바미 소라니 븘고 지기수도디 數語敧紗帽高

文擲彩牋之芬○不조말ᄒᆞ샤사모ᄅᆞᆯ기수 리고쇼ᄅᆞᆫ그를빗난죠ᄒᆡ예더뎌

ᄉᆞ다 矣 與饒行處樂離惜醉中眠戔○與心ᄭᅴ 하됴나ᄂᆞᆫ사

ᄒᆡ여즐기고여ᄎᆔ요ᄆᆞᆯ술 허醉中에셔不오노라 單父長多暇河陽

實少年子義○宓子賤ᄭᅴ為單父宰ᄒᆞ고潘 岳이為河陽令ᄒᆞ다○單父ㅣ기리

閑暇ᄒᆞ미 하니 河陽ᄋᆡ 眞實로 나ᄒᆡ 졈도다 客居逢自出爲別幾

悽然 之芳○左傳에 晉侯ㅣ 曰康公은 我之 自出이라ᄒᆞ니 謂外甥也ㅣ라○나 그 내로사 로매 自出을 맛보니 여희유메 몃버늘 슬커니오

宇文晁ᄂᆞᆫ 尙書之甥이오 崔彧은 司業之

孫이오 尙書之子ㅣ니 重從鄭監審前湖ᄒᆞ니

라

郊扉俗遠長幽寂野水春來更接連 미햇집 門이 世

라○酒樽ㅅ雲霞ㅣ 님ᄀᆞᆯ ᄒᆞ닐 當ᄒᆞ니 가비야와 처ᅀᅥᆷ 흘고 비치 蓮니 몃구스ᄅᆞᆯ 별티니 ᄢᅢ렛다가도 로 두렵ᄂᆞ다 不但習池歸酩酊 君看鄭谷去

負緣 山簡ㅅ 鎮襄陽ᄒᆞ야 遊習郁의 池上ᄒᆞ니라 鄭子真ᄋᆡ 居谷口ᄒᆞ니 比鄭審ᄒᆞ다○ᄒᆞᆫ갓 習池에 가 술 醉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그듸ᄂᆞᆫ 鄭谷애 가 버므러 슈믈 보라

、章留後新亭會送諸君

新亭有高會行子得良時 새亭子애 노ᄑᆞᆫ會 集이 잇ᄂᆞ니 녀가
난 소니 됴ᄒᆞᆫ ᄣᅴ 얻도다 日動映江幕風鳴排檻旗 ᄒᆡᆺ비 혠마
구매 비친 幕이 뮈오 ᄇᆞᄅᆞ맨 軒檻애 ᄇᆞᆯ렷ᄂᆞᆫ 旗ㅣ 우놋다 絶葷終不改勸
酒欲無詞 葷ᄋᆞᆫ 辛臭菜也ㅣ니 絶葷은 不食葷菜也ㅣ니라 ○ 내 나ᄆᆞᆯ 그
츄모ᄅᆞᆯ ᄆᆞᄎᆞᆷ내 고티디 아니ᄒᆞ리니 와 술 勸ᄒᆞ맨 닐울 마리 업도다 已墮峴山
淚因題零雨詩 襄陽人이 思羊祜ᄒᆞ야 立碑峴山ᄒᆞ니 望者ㅣ 皆墮淚
ᄒᆞ더라 東山詩예 我來自東ᄒᆞ니 零雨其濛이라ᄒᆞ니 此敘久行之詩故로 今用之ᄒᆞ니라

此ᄂᆞᆫ 뎌 比楊長寧縣令ᄒᆞ다 ○ 楊雄의 지비와 ᄉᆞᆯ 醉ᄒᆞ고 子賤이 거믄고 노ᄂᆞᆫ 堂애 올오라

不堪垂老鬢還對欲分襟 늘구메 다ᄃᆞ론 귀믿터리로 이과 ᄃᆡ 몯ᄒᆞ리로소니 여희오 져ᄒᆞᄂᆞᆫ 옷기즐 도로 對호라

天地西江遠星辰北斗深 長安城이 上直北斗ᄒᆞ니 此ᄂᆞᆫ 甫ㅣ 在西江이오 二人이 歸長安也ㅣ라 ○ 天地人ᄉᆞ 이예 西江이 머니 星辰ᄋᆞᆫ 北斗ㅣ 깁도다

烏臺俯麟閣

長夏白頭吟 烏臺ᄂᆞᆫ言侍御ᄒᆞ다 麟閣ᄋᆞᆫ即秘書省이니 言正字ᄒᆞ다 ○烏臺ㅣ 麟閣ᄋᆞᆯ 디럿ᄂᆞ니 긴 녀르메셔 셴 머리예 ᄂᆞᆯ이 ᄑᆞ리로다

、送靈州李判官

羯胡腥四海 回首一茫茫 되ᄃᆞᆯ히 四海ᄅᆞᆯ 비리우니 머리 돌아 ᄇᆞ라보니 ᄒᆞᆫᄀᆞᆯᄋᆞ티 아ᄋᆞ라ᄒᆞ도다

血戰乾坤赤 氛迷日月黃 피나게 사호니 乾坤이 븕고 氣運이 迷亂ᄒᆞ니 日月이 누르도다

將軍專策略 幕府盛材良 將軍ᄋᆞᆫ ᄭᅬᄅᆞᆯ 오ᄋᆞ로ᄒᆞ고 幕府엣 ᄌᆡ조 어디니 하도다

출시라○그뒤로여희유메뉘누니더주리 소將次ㅅ늘구메病이모매버므러셰라

出蕩同斜日 臨風看去塵 ᄂᆞᆫ므리나빗근ᄒᆡ 와ᄀᆞᄐᆞ니ᄇᆞᄅᆞ몰

臨ᄒᆞ야셔가ᄂᆞᆫ 드트ᄅᆞᆯ보노라 商歌還入夜 巴俗自爲隣 曾子

商歌ᄒᆞ니着出金石이러라此ᄂᆞᆫ別後에 甫ㅣ自言獨居之事ᄒᆞ다○商聲ᄋᆞ로놀애

블러도로바미드러오고巴州 人風俗ᄋᆞᆯ내이웃ᄒᆞ리로다 尙愧微軀在

遙聞盛禮新 上句ᄂᆞᆫ愧不得事君也ㅣ니라 盛禮新은言代宗이卽位也ㅣ라
라○죠고맛모미사라이슈믈오히려븟ᄀ 디노나盛ᄒᆞᆫ禮ㅣ새로외요몯아수하치든
도라 山東群盜散闕下受降頻 言魏博田承嗣와汴州張獻誠
와幽州李懷仙等이來降也ㅣ라○山東애 ᄃᆞᆯ盜賊이흐르니闕下애降服바도미ᄌᆞᆺ도
다 諸將歸應盡題書報旅人 旅人은甫ㅣ自 謂라時예分諸
將ᄒᆞ야戍福昌南陽ᄒᆞ더니今에嚴郎이歸 京ᄒᆞ면必見諸將ᄋᆡ盡還ᄒᆞ리니須題書ᄒᆞ
야報之於甫也ㅣ라○諸將이네가매당 당이나업ᄉᆞ니그믈서나그내게살쉬라

穀ㅣ라○節의 이기우러 黃屋을 보ᄂᆞ니 正에 블ᄅᆫ 놋ᄃᆞ고 百官을 ᄒᆞ드리놋다劍
外春天遠巴西勅使稀○此ᄂᆞᆫ 甫의 所在ㅣ라○劍閣人 밧긔 봄 하
ᄂᆞᆯ히 멀오 巴西엔 勅使ㅣ 드므도다 念君經世亂匹馬向王畿
그듸의 世亂ᄋᆞᆯ 디내오 ᄒᆞᆫ ᄆᆞᆯ 타 王畿로 向ᄒᆞ야 가ᄆᆞᆯ 思念ᄒᆞ노라